

인원이 사망감 갖고

지부는 지부활동의

근본 목적 이해해야



감사의 입장에서

기독교절제소녀관 관장 俞 聖 順

1975년도는 대한간호협회로써는 기쁨과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고 본다. 전남지부 광주에서 매식구를 거느리고 총회를 거쳐 회원복지를 위한 활동을 위하여 동분서주 해왔다.

국민보건에 미치는 직접 간접사건들이 응급환자 생기듯 일어나는 것을 막으며 예방하는데 주야를 가리지 않고 애쓴 보람이 있어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실이 간호파로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식과 의료법의 일부단이라도 제외할 일 등은 간호협회의 참뜻을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이해하였다는 데서 기쁨을 가지게 된다.

1974년도 본회의 감사가 되어 지방감사를 처음 실시하였을 때는 감사라기 보다 지방의 실태 파악과 격려를 하였다고 본다면 75년도 지방감사는 지드감사라고 할 수 있다. 74년도 순방시에는 지부활동을 생각하기 전에 사무처리가 잘되지 않았으나 75년도에는 많은 지부가 노력한 결과 제반자료가 잘 되었음은 보람된 일이라 하겠다. 본

회감사는 잘못을 체크하기 전에 본회와 지방의 격차를 좁히고 도움을 주는데 뜻이 있다고 본다. 대한간호협회는 50여년의 역사를 가졌으나 아직도 지부활동이 활발치 못함은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부의 사정이 자급부족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는 가는 일이나 회원으로써의 의무가 무엇이며 지부활동의 근본목적은 충분히 이해함과 동시에 이사가 될 사람들은 자기적책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물론 임원이나 이사가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지부는 모든 것을 본회에만 의존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바라기는 지역적인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그 해당지부가 활동하는 것이 대한간호협회가 지부를 조직한 목적인 줄 안다. 고아원, 양노원 타단체에 참석하는데 쓰는 비용이 전체 경비에 비하여 좀 많은 듯 함은 사업의 특성과 경비지출에 개인사정이 개입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부육성을 위하여 유능한 유급 상무를 두어 간호사업에 성과를 보는데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본회에서 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회 뜻과는 달리 약간의 인사치레로 공직에 있는 사람을 상무로 두고 매년 이월되는 금액을 적금하는 일은 우리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협회 활동은 아니며 지역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은 지부 자체서 할 일이라 본다. 대의원 총회에서 채택된 중점을 가지고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여야 하며 본회에 지시나 받고 아니면 의존하는 경향은 탈피하여야 한다. 특별히 의학의 발달은 어느 분야보다 빠른 이때 우리 간호원의 분야도 그것을 수반하여야 함은 너무나 타당한 것이라 보겠다. 보건을 위하여 앞장설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사대에 맞게 수련하여야 하며 국가가 요구하는 의료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땅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간호원의 활동이 필연적임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한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하겠다.

(p. 26으로 계속)